



언론의 책임

▲ 2013-114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3년 5월 13일자 「스타투데이 &」 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8면짜리 주말 별지 섹션 「스타투데이 &」에 관계사인 보도채널 MBN의 프로그램과 출연인물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8개 면 중 2개 면은 전면광고이며 나머지 6개 면 중 4개 면 전체를 MBN 프로그램과 출연인물에 관한 기사들로 채웠다.

아예 관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보다 오로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2011년 연말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한 후, 기존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보도채널은 각기 다른 방송과 치열하게 시청률 경쟁을 해오면서 일부 신문사들은 자사 신문지면을 관계사 종편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하는 데에 몰두해왔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주말 별지 섹션으로 올들어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회의에서 이미 경고를 받은바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는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제864차 회의에서 같은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 2013-118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별지섹션 ‘스타투데이 &’ 2013년 5월 30일자, 6월 13일자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8면짜리 주말 별지 섹션 ‘스타투데이 &’에 관계사인 보도채널 MBN의 프로그램과 출연인물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8개 면 중 2개 면은 전면광고이며 나머지 6개 면 중 4개 면 전체를 MBN 프로그램과 출연인물 관련기사들로 채웠다.

이에 관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별지섹션을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보다 오로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2011년 연말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한 후, 기존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보도채널은 각기 다른 방송과 치열하게 시청률 경쟁을 해오면서 일부 신문사들은 자사 신문지면을 관계사 종편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하는 데에 몰두해왔다. 급기야 매일경제는 관계 방송사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말 별지 섹션을 제작하기에 이르러 이미 올 들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작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5월 7일자 21면 「“내 책 읽고 운다고? 웃기다는 편이 훨씬 좋아”」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독자들에게 보내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내 책을 읽고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설 틈없이 웃었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 훨씬 더 좋다”며 “아무래도 유머감각 쪽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8년만에 일본 팬들 앞에 등장해 자신의 문학여정을 회고하는 가운데 한 말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비록 해당 문장의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그 내용과 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상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제목에 등장하는 ‘웃기다는 편이 훨씬 좋다’라는 표현이다.

‘웃기다’의 우리말 원형은 ‘웃다’이다. ‘웃기다’는 ‘웃다’의 사역동사로서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기본형이다. 어떤 사람의 현재 행동을 나타내려면 기본형을 활용해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 제목의 표현은 ‘웃기다’가 아니라 ‘웃긴다’라고 해야 옳다.

더욱이 이 제목의 앞 문장에서 “내 책 읽고 운다고?”라며 ‘울다’의 활용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활용현재형을 쓰는 게 맞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기다’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문화면 머릿기사의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국민일보 2013년 9월 5일자 17면 「선물 사면 상품권 주고 귀향 길 교통비도 할인 ... /카드 꺼내니 더 풍성해진 추석」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추석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추석선물세트 할인, 교통비 할인, 경품행사 등 종류도 다양하다. 미리 본인이 소지한 카드와 혜택을 확인해두면 씹씹이가 커지는 명절에 한 폰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일부 대형할인점에서 5일부터 19일(홈플러스는 20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 시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1일부터 22일까지 주유소, 고속버스, 철도, 항공업종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업종의 이용 조건을 포함해 삼성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교통비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한카드도 교통비 혜택을 제공한다. 17일부터 22일까지 신한카드로 10만

원 이상 주유(LPG 포함)하고,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한 고객에게 통행료의 50%를 캐시백 해준다. 또 KTX나 고속버스, 국내선 항공 운임을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1만원을 돌려준다.

현대카드는 5일부터 19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현대카드로 추석 선물세트 행사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고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들에게 최고 5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물 혜택도 풍성하다. G마켓에서 현대카드로 8일까지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매금액의 5%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에서 식품 선물세트를 살 때는 BC카드가 유리하다. BC카드는 6일부터 18일까지 20만원 이상 식품 선물세트를 BC카드로 구매하면 1만원, 4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9일부터 15일까지 현대아이파크몰에서 BC카드로 20만~500만원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상품권으로 준다.

롯데카드는 5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서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롯데카드로 선물세트를 결제할 경우 최대 30% 할인해주고,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사면 구매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하나SK카드는 '행복 한가위 大잔치' 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백화점에서 하나SK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SK주유소 모바일주유권을 제공한다. 누적 사용액이 20만원 이상이면 1만원, 40만원 이상이면 2만원짜리 주유권을 받을 수 있다. 13일부터 22까지 경부·영동·서해안·호남·남해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때마다 2000원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더불어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하나SK카드 모바일카드로 결제시 1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NH농협카드는 5일부터 19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사기간 중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에서 과일 및 가공생필품 선물세트를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준다. 또 9월 한 달간 농협주유소를 이용한 고객과 NH농협 알뜰주유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카젠엔진오일 2만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외환카드는 ‘오색찬란 한가위 이벤트’를 열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추석연휴(18~22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성인 4만4000원)을 1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 이벤트도 풍성하다. KB국민카드는 30일까지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귀성, 차례, 힐링 관련 업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응모하고, 행사기간 중 해당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918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30일까지 우리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하고 홈페이지나 ARS(1577-3920)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스파 이용권, 주유상품권, CGV 영화관람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추석을 앞두고 각 신용카드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고객 서비스 이벤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 자체는 독자들에게 생활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 카드 꺼내니 더 풍성해진 추석」이라는 기사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사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카드를 더 사용하라고 직접 촉구하고 있다는 어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의 판촉의도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확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등 편집기준에 따른 제목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책임과 신뢰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문〉

한국일보 2013년 10월 14일자 22면 「웃긴데 헛헛하네 … ‘대세배우’ 하정우 감독 데뷔작」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 영화 웃긴다. 요절복통의 등장인물들이 관객의 배꼽을 정조준하고, 장난기 어린 대사가 눈가 주름을 깊게 만든다. 웃고 싶는데 그다지 웃을 일 없는 관객은 만족스러운 94분을 보낼 듯하다. 충무로의 블루칩 배우 하정우가 처음 메가폰을 쥐며 시선을 모은 이 영화는 꽤 잘빠진 코미디다.

설정부터 웃기려 든다. ‘육두문자맨’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욕설로 벼락 한류 스타가 된 마준규(정경호)가 스크린의 중심에 선다. 도쿄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탄 그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한다. 막 결혼한 여성 승객이 뜨거운 눈빛으로 그에게 사인 요청을 하고 마준규가 출연한 영화에 투자했다는 대기업 회장이 여비서와 탑승해 ‘갑질’을 마다하지 않는다.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스님이 “고기는 먹지 마라” 등 걸핏하면 참견하려 든다. 마준규와 한때 밀애를 즐겼던 여승무원이 다짜고짜 그의 뺨을 때리는데 다른 승무원들은 여전히 그에게 구애의 눈빛을 보낸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마준규가 온통 정신을 뺏겼는데 설상가상 비행기는 태풍에 휘말려 추락 위기에 처한다.

웃음의 대부분은 욕설 섞인 속사포 대사로부터 온다. 영화 속 태풍의 이름은 냉기미와 아사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욕설과 속어를 응용했다. 마준규의 신경을 거슬리는 회장이 거느린 그룹 이름은 지질함이 묻어나는 짜사이. 중국음식점 밀반찬이다. 영화는 그렇게 근엄이란 가면 뒤에 숨은 인간 군상들의 비루함을 야유한다. 등장인물들의 말투와 동작 하나하나에 성격이 배어난다. 10여

년 배우 생활로 다져진 하정우의 영화적 내공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웃고 웃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른다.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답을 찾긴 쉽지 않다. 삶에 대한 성찰도, 특별한 메시지도 딱히 없다. 그래서일까 강한 웃음 뒤 짙은 허무가 느껴진다. 기내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에 집중하다 보니 극적 힘은 약하다.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서 덜 웃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하정우 감독은 “태풍 때문에 비행기 착륙에 실패한 류승범의 경험에서 착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화의 동명 중국소설을 바탕으로 한 ‘허삼관 매혈기’도 연출할 예정이다. 17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인 하정우가 처음으로 감독한 영화 ‘롤러코스터’에 대한 평론이다. 기사는 이 영화가 시중 관객을 웃게 만든다고 평했는데 문제는 제목의 ‘웃긴데 헛헛하네’라는 표현이다.

‘웃긴데’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와 같은 ‘~는데’는 형용사에 붙는 어미이며 ‘웃다’와 같은 동사에는 ‘~는데’라는 어미가 붙기 때문이다. ‘웃긴데’는 ‘웃다’라는 동사 원형의 사역형 ‘웃기다’에서 유래하므로 ‘~는데’라는 어미를 붙여 ‘웃기는데’라고 표현해야 우리 어법에 맞다. 또 만약 과거시제라면 ‘웃겼는데’라고 해야 한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긴데...’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문화면 기사의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총 권

〈주문〉

경남신문 2014년 1월 3일자 1면 「부산, 끝없는 '경남 침탈'/1970년대 시작된 '침탈의 역사'/아직도 호시탐탐 기회 노리며 경남-부산 대립·갈등 이끌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의 경남에 대한 야욕이 끝이 없다.

최근에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 금융주권의 상징' 경남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동남권 금융패권을 사실상 거머쥐었다.

앞서는 공항과 항만, 방송, 식수에 이르기까지 경남지역과 협의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끝없는 세력 확장에 골몰해 왔다.

이로 인해 가장 인접해 서로 상생이 필요한 두 지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경남은행 인수 문제로 동남권 경제협력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재배적이다.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 현재 이 일대의 행정구역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이란 명칭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원래 부산 강서구 일대는 김해시에 속해 있다가 1978년에 부산시로 강제 편입됐다. 부산지역 정치권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부산시가 김해공항의 명칭을 공공연히 부산공항으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김해시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해시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강서구를 재통합하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와 창원시 진해구 용원 일원에 항만을 건립하면서 경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2005년 개항을 1년 앞두고 명칭과 신항 관할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항 신항'을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남도가 '신항명칭 무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부산과 수년간에 걸친 대립을 보이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명칭은 결국 '신항'으로 확정됐다. 관할권 다툼도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났다.

부산시는 또 2009년 부산시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통해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경남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광역상수도사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남강댐의 유지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추가로 확보된 3억5000만t의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남강댐 담수율이 평소 30% 안팎에 그쳐 댐수위를 올리더라도 100만t의 물을 확보할 수 없고, 남강댐의 유지수위를 높일 경우 침수지역 확대로 주민피해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본사를 두고 경남에서 활동하는 KNN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민방 설립과 관련해 1도1사 원칙을 고집해오던 정부에 대해 경남에 민방이 설립될 경우 지역방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논리를 펼쳐 2005년 광역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KNN은 부산·경남이 대립하는 사안은 경남지역 언론처럼 강하게 경남의 여론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뉴스 건수에도 경남의 비중은 낮다.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추진도 10여 년 동안 경남도민의 민영화 지역환원 열망을 저버리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경남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와 경남도는 BS금융지주에 여러 차례 동남권경제협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요청했지만 BS금융지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종 입찰을 앞두고 사모펀드의 자격논란 등을 제기하며 단독입찰로 전환해 일단 인수전에 성공했다. 하지

만 경남도와 시군의 경남은행 금고 해지를 비롯, 지역 상공인들의 거래정지운동 등이 이어지면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승자의 저주’로 치달을 수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9669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위 기사에서 부산과 경상남도가 대립했던 몇 가지 지역 현안들을 되짚으면서 부산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끝없는 세력 확장에 골몰해 왔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큰 제목과 작은 제목도 「부산, 끝없는 ‘경남 침탈」 「1970년대 시작된 ‘침탈의 역사」 등 자극적으로 달았다.

기사의 직접적인 배경은 경남은행 인수전에서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 지역의 지지를 받은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각 입찰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보다 3천100억 원이 많은 1조2천80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써낸 것으로 보도됐다. 지방정부간 다툼이 아닌 민간 차원의 경쟁에서 최고가 낙찰이라는 시장주의적 입찰방식에 따라 관가름 난 것이다.

그런데도 경남신문은 이 문제를 과거 광역자치단체 간 현안이었던 김해국제공항 명칭, 부산·진해 ‘신항’ 명칭과 관할권 문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 등과 연관지어 『부산의 경남에 대한 야욕이 끝이 없다』는 식으로 거칠게 비난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 현안들은 한쪽이 다른 쪽 몫을 빼앗는 양상이 아니라 양쪽의 이해와 명분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목에 나온 ‘침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일부 현안들은 양측간 협의에 의해 오래 전에 마무리됐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4년 3월 14일자 24면 「웃긴 얘기 안 해도 좋은 사람 말에 귀 기울이듯 결국, 사람이 좋아야죠」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KBS는 지난해 10월 가을 개편을 맞아 칼을 빼들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연출로 나영석 PD와 함께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유호진 PD를 투입하고 <개그콘서트>의 서수민 책임PD를 총괄팀장에 앉혔다. 최근 만난 유호진 PD는 메인 연출로 자신이 지명됐을 때의 두려움을 털어냈다. 예능 국장과 이하 선배들의 설득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중략)

서수민 총괄팀장은 전체 흐름을 읽어내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이전 시즌 부진의 이유가 제작진과 출연자 간 갈등이 선명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 PD에게 ‘악마’가 될 것을 주문했다.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출연자들의 돌발적인 행동에서 웃음의 포인트를 찾으라는 것이다. 유 PD는 초창기 <1박2일> 선전 배경에는 야외취침, 먹거리 북북북 게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tvN으로 이적해 <꽃보다 할배>로 대박을 터뜨린 선배 나영석 PD를 언급하며 “짐꾼으로 나오는 이서진이나 이승기는 불편한 여행에서 오는 긴장감을 완충해주는 역할로 철저하게 계획된 캐릭터”라고 말했다. (중략)

〈1박2일〉이 방송되는 일요일 오후 6시 시간대는 전쟁터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시청률 1위가 바뀐다. 경쟁 프로그램인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과 MBC 〈일밤-진짜 사나이〉(이하 진짜 사나이)는 호시탐탐 1위를 넘본다. 유 PD는 “이토록 시청률이 엇치락뒤치락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모두 완성도 높은 콘셉트에 어필하는 시청자 성별과 연령대가 달라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언제까지나 철들지 않을 남자들의 좌충우돌 여행기가 우리 프로그램의 포인트죠. 타사 프로그램이지만 〈꽃보다 할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노배우의 우아한 여행기가 아니라 허술한 할아버지들의 고생스러운 여행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웃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의 말에는 누구나 귀기울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32127445&code=9608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KBS의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의 연출을 맡고 있는 유호진PD에 관한 피쳐 스토리다. 기사는 그가 연출을 맡은 이후 ‘1박2일’이 부진에서 벗어나 두 자릿수 시청률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는데, 문제는 기사 본문과 제목의 ‘웃긴’이라는 표현이다.

‘웃긴’은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제목에서와 같은 ‘~ㄴ’는 형용사에 붙는 어미이며 ‘웃다’와 같은 동사에는 ‘~는’이라는 어미가 붙어야 옳다. ‘웃긴’은 ‘웃다’라는 동사 원형의 사역형 ‘웃기다’에서 유래하므로 ‘~는’라는 어미를 붙여 ‘웃기는’이라고 표현해야 우리 어법에 맞다.

스포츠경향은 이날 신문 16면에 같은 기사(「결국은 사람...사람이 승부수죠」)를 게재하며 본문 중 표기를 경향신문과 달리 ‘웃기는’으로 옳게 표기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긴’이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

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대중문화면 머릿기사의 본문은 물론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주문〉

세계닷컴 2014년 1월 22일자 「졸업하려면 교수에게 50만원 상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4-01-22 09:16:28, 수정 2014-01-22 09:48:43

졸업하려면 교수에게 50만원 상납?

관동대 A교수, 학점 이수를 빌미로 학생에게 금품 요구 의혹

A교수, 제기된 의혹 전면 부인... “윤리위 통해 진실 밝혀질 것”

뿌리깊어 튼튼한
관동대학교

한 지방사립대 교수가 제자에게 학점 이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은 제자는 이 교수의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결국 졸업하지 못하게 됐다.

이 신문에 따르면 스포츠예술대학 음악학부 4학년 이모(24)씨가 A교수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았다고 신고함에 따라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관동대에 따르면 이씨는 “졸업 필수학점을 빌미로 전공과목 A교수가 현금 5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이달 초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2학기 이씨가 수강한 A교수의 수업은 ‘전공실기’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이다.

이씨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을 한 뒤 취업계를 내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을 때부터 A교수가 ‘십일조’를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A교수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졸업하고 싶으면 현금 50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고 말했다.

이씨는 A교수의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전공실기 과목의 기말시험격인 졸업연주회에 참여했으나 F학점을 받았다.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이씨는 결국 올해 졸업할 수 없게 됐다.

같은 학과의 한 학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쉬쉬하던 학생들이 A교수와 관련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A교수가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편입생들로부터 학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스포츠예술대학 한 학생의 이름으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장학금을 신청, 학생이 받은 장학금 150만원 중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학생들이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A교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나와 마찬가지로 취업해 수업에는 나가지 않고 졸업연주회만 참여

한 다른 학생은 F학점을 받지 않았는데, A교수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기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2/20140122000760.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지방사립대 교수가 제자에게 학점 이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 측도 이 사실을 해당 학생으로부터 제보받은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학생의 주장일 뿐이고, 해당 교수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자(기자)는 기사 서두에 해당 학교의 교명과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홍보리플릿의 일부를 게재하였다. 설령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해도 해당 학교에서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또다른 사례는 알려진 바 없고, 더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의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